

瞑 想

가출가출한 머리같은 오막사리 처마끝,
씻파람에 코나무가 서분한양 간질키오.

들窓같은 눈은 가볍게 닫혀,
이밤에 戀情은 어둠처럼 골골히 스며드오.

8. 20.

명상

가칠가칠한 머리칼은 오막살이 처마끝,
휘파람에 콧마루가 서운한 양 간지럽소.

들창같은 눈은 가볍게 닫혀,
이 밤에 연정은 어둠처럼 골골이 스며드오.

8. 20.